

민족의 가슴에 독립의 불을 지른 송진우!



3·1운동을 처음으로 모의한 중앙학교 3인방이자 동아일보 사장으로서 언론·문화·체육·과학기술운동을 주도하며 독립에 대한 희망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온몸으로 투쟁한 국내독립운동의 구심점이었고, 해방 직후 좌우 이념의 갈등이 극심하던 시기에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둔 국가건설에 통합을 추구한 역할을 했던 민족운동가이자 정치사상가였던 고하(古下) 송진우(宋鎭禹) 재조명!

본서는 대한민국 역사와 미래총서 제3권으로서 “건국의 아버지들 고하 송진우와 민족운동”이라는 제목 하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역사학자의 눈으로 풀어낸 역저이다. 1945년 당시 미군정청의 정치고문 등이 본국의 국무장관 또는 주일 정치고문 등에게 보낸 보고서인 FRUS 1945. The British Commonwealth, the Far East Volume VI를 토대로 새롭게 사실을 정리한 책이다. 이 책은 고하는 단지 정치인이 아닌 시대의 나침반이었음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고하가 일제의 암흑시대에 불굴의 정신으로 민족을 이끌고, 민족에게 희망과 빛을 주어 갈 길을 밝힌 공로는 임란시(壬亂時)의 충무공의 공적에 비길 수 있다. 임진왜란시에는 무려하나마 뒷일을 보살필 정부가 있었지만 선생은 나라가 망한 후에 오직 민족을 믿고, 민족에 대한 신념과 사명감으로 일생을 헌신했다. 수많은 어려운 고비에다 고결한 지덕(知德)과 탁월한 판단력으로 이를 헤쳐 나가고, 끊임없는 유혹과 핍에도 빠지지 않은 독야청청의 일생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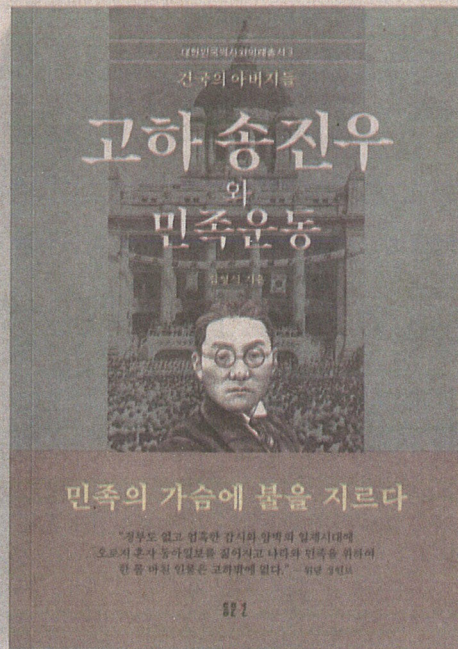
— 위당 정인보

“고하의 민족불멸론은 쉬우면서도 핵심을 정확히 찌르고 있다. 국가적 계속성은 잠시 끊어졌으나 민족적 계속성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것이 결국 조국광복의 원천이 되리라는 주지(主旨)를 이처럼 간명하게 밝힌 연설도 흔하지 않을 것이다.”

— 김학준 전 동아일보 회장

“고하는 동경에서 법학을 공부하던 약관시절부터 비명으로 돌아가기까지 천가지 만가지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살아온 자유와 독립의 권화(權化)였고 겨레로서는 잊어서는 안될 위대한 거목(巨木)이 되었다. 과거를 돌이켜볼 필요도 없이 앞에 놓인 국내의 정형(情形)과 닥쳐올 장래를 바라볼 때 고하가 계셨다면 우리의 가난과 신고가 이렇 수가 있을까 하는 일념에서 고하에 대한 그리움은 더해 간다.”

— 이 인 전 법무부 장관



《고하 송진우와 민족운동》

[대한민국역사와미래총서 3 건국의 아버지들]

김형석 지음 | 동문선 | 정가 20,000원

· 판형 : 152×224 · 페이지 : 내지 358
· 분야 : 역사 / 한국사 / 일대기 (인물사)
· 출간일 : 2024년 5월 8일 · ISBN 978-89-8038-950-6 03900